

## 2022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2022. 1. 5.(수) / 등록금심의위원회

### □ 회의 개요

- 일시: 2022. 1. 5.(수) 14:00~14:30
- 장소: 본관 3층 대회의실
- 참석자: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위원 9명 전원 참석
  - 당연직: 교학처장(위원장), 교학제2부처장(부위원장), 총무과장
  - 위촉직: 전임교원 1명, 학생대표 3명, 학부모 1명, 전문가 1명
- ※ 배석: 예산담당사무관 및 업무담당주무관

### □ 회의 안건

-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(전학년도 대비 동결안)

### □ 회의 결과

- 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최종 가결(재적위원 9명 전원 동의)

### □ 주요 회의 내용

- (위원장) 재적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(예산담당 사무관)에게 진행요청 함. [개회 시각 14:05]
- (예산담당 사무관) 위원소개와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.
- (위원장) 보고 받은 책정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부위원장) 예술사와 전문사가 등록금이 동일한지 물음. 5학년은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봄.
- (예산담당 사무관) 예술사와 전문사 등록금이 동일하며, 5학년은 건축과에 해당됨을 설명함.

- (학생위원) 작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,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신해 그 대안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마쳤는데, 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로 파악이 되고, 당시 제25대 학생회에서 학생 의견 수렴 결과 자료를 보면, 602명 학생이 응답해서 575명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줌. 그 중에서도 수업 질 저하로 인한 학습권 침해보다는 학내 시설물 이용 불가에 대한 불만 의견이 가장 많았음.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 받고자 하는 교육서비스 안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 차별점이 있는 학내 연습실, 작업실 같은 시설물 사용 권한이 있는데, 실제로 작년에 많은 원에서 시설물 사용금지가 되었고, 위드코로나로 풀리는 듯하였으나, 음악원 같은 경우 연습실 개방을 안 해서, 학생들이 외부 연습실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이 나왔음. 등록금이 인상되던, 동결되던, 2022년도에도 제대로 된 시설물 사용이 풀리지 않으면,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의견이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고, 이번에도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나 방안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음.
- (예산담당 사무관) 본 회의는 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위해 검토한 자료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. 학생위원이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회의를 위한 준비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음. 향후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 같음.
- (위원장) 특히 음악원의 경우 연습실이 지하에 위치, 밀폐된 공간으로 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와도 공기 중에 잔여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,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, 학교 차원에서 연습실을 개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임. 그로 인해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비를 들여서 외부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음. 이 사태가 22.1~2학기까지 지속 될 수 있으므로 학생회 차원에서 이 상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, 학생 의견을 들어봐서 따로 총무과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음.
- (학부모위원) 무용원과 음악원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, 무용원의 경우

대면 수업 및 연습실을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, 학생 입장에서는 왜 무용원은 되고, 음악원은 안 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음.

- **(위원장)** 무용원은 강력하게 주장해서,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하고 있음. 아이러니하게, 음악원은 다른 원보다 열심히 철저히 방역하고 있음에도 통계로 보면 음악원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, 학생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. 교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,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,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더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, 방역에 신경 쓰고 있는 음악원의 상황을 설명함.
- **(위원장)**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물어봄,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의결안 동의 여부를 진행하기로 함.
- **(전임교원)** 우리 학교 예산 현황 자료에서 감액 사항 등 예산 관련 질문을 함.
- **(예산담당 사무관)** 예산용어(△ 감액) 및 감액 편성 부분에 관해 설명함.
- **(부위원장)** 총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, 증가요인에 대해 물음.
- **(예산담당 사무관)** 총교육비 증가요인은 국가지원금, 자체수입금, 발전기금,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의 합계로, 국가지원금을 매년 증액하고 있고, 여러 예산의 합계들이 모여져서 조금씩 증가 되는 사항이고, 등록금은 동결되어 있는 사항임을 설명함.
- **(예산담당 사무관)** 앞에 학생대표가 의견을 준 시설물 이용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, 별도로 시설물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던 따로 마련하겠음.
- **(학생대표)** 작년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.
- **(업무담당자)** 등록금 일부를 감액이나 반환을 해달라는 사항인지, 아니면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인지 물음
- **(학생대표)**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. 학생들이 일부 반환을 해 달라 또는 재작년 2학기 때처럼 학업장려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든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음.

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지만, 올해에도 시설물 사용이 제한 된다면 꾸준히 등록금 반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염려가 돼서 이 자리에서 말하게 되었음.

- **(예산담당 사무관)** 시설물 사용에 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 하게 사용 제한 상황이 있었음.
- **(학부모위원)** 지난번 회의 때 등록금 반환이 힘들면, 온라인 시설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봄.
- **(총무과장)** 현재 온라인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.
- **(위원장)** 온라인 시설 부분은 기획과에서 버추얼캠퍼스라는 화두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임.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투입이 안 돼서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,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므로, 조금 기다려주시길 바람.
- **(총무과장)** 시설사용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, 전체 가이드 안에서 각원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음. 음악원과 무용원의 차이도 원에서 자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, 일률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음.
- **(위원장)** 학교 특성상, 원별로 특성 및 상황이 다르다 보니, 모든 걸 일률적으로 힘든 상황임. 학생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견 수합을 하고,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음.
- **(총무과장)** 총교육비에서 등록금의존율이 19%밖에 안 됨. 등록금으로 수업하고 교육지원을 다 충당을 할 수 없음. 총교육비가 증액되는 건 국가지원금이 증액됨으로 인한 상황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음.
- **(위원장)** 토론을 마친 후, 위원 모두가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 9명(재적위원 9명) 전원이 동의하여 위원장은 원안 가결을 선포함.
- **(위원장)**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쭙봄.

- **(전임교원)** 온라인 강의 환경구축과 관련하여, 스위스 로잔 공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를 소개, 전 세계에서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서로 마주보게 세팅을 해주고, 얼굴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줌 안에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줄이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인상 깊었음을 얘기함. 총무과에서 물품을 구입하실 때 일률적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것 보다는 각 원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할 것 같음.
- **(총무과장)**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음. 대체로 물품을 구입할 때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사양의 물품을 구입해줌.
- **(위원장)** 기자재는 원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원에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음.
- **(위원장)**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.

[폐회 시각 14:30]